

길림시 송화강 가을 풍경

유람선 타고 야경 감상하고 경극무대도 즐기고



가을바람이 강성의 밤을 가볍게 쓰다듬고 달빛이 송화강을 환하게 비추는 밤... 송화강 야간관광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우선 선택으로 되었다.

장막이 드리우고 반짝이는 강물에 도시의 등불이 비치는 시점, 송강중로의 삼도부두는 유람객들로 붐볐다. 길림시 삼도부두는 청초시기에 이미 중요한 교통중추였다.

현재 삼도부두는 현대화한 시설, 각종 유람선과 쾌속정 등 관광 선박으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매일 저녁 8시경, 수백명의 관광객을 태운 춘도호 유람선이 삼도부두에서 천천히 출항하여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 넓은 유람선 2층에서 바라보면 송화강 양안의 아름다운 경치가 한눈에 안겨온다.

춘도호 유람선 선장 주명군의 소개

에 의하면 춘도호는 송화강에 띄운 첫 초대형 다기능 유람선으로서 이중 구조로 500 개의 객석, LED 대형 스크린, 전문 조명 음향을 갖추었다. 매일 저녁 8시 8분에 삼도부두에서 유람선을 타고 강을 따라 올라가면 두도부두(头道码头), 립강문대교, 뚝대광장 등을 거쳐 송화강 음악분수를 감상할 수 있는데 항행거리는 약 60 분이다.

유람선이 출발하면 길림시희곡극단의 배우들이 관광객들을 위해 다채로운 공연을 펼친다.

길림시희곡극단 공연팀 탐장 양명은 이날 <소도시 이야기>, <외할머니의 땀방울> 등 옛 유행가를 부르고 나서 파트너와 함께 2인전 <쌍화문>을 선보였다. 그는 “유람선에 앉아 강바람을 맞으며 은은한 옛 노래를 들노라면 마음이 상쾌해

진다.”며 매일 공연 곡목이 다르다고 했다.

상주에서 길림에 놀러 온 우녀사는 길림시 송화강변의 야경은 너무 아름답다며 특별한 체험이라고 감탄했다.

유람선이 천천히 립강문대교 부근에 도착하면 공연이 마감되는 시점이다.

길림 시민 궈선생은 “나는 길림시 토배기이다. 올해 송화강 양안의 야경은 특별히 나를 매료시켰다. 찬란하고 눈부신 불빛을 보면서 고향이 자랑스러워서 찬사를 보냈다.”고 말했다.

유람선이 립강문대교에 이르자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1992년에 건설된 이 다리를 감상했다.

길림시 립강문대교는 중국 최초의 사장삭교(斜拉索桥)로서 길이가 680메터이고 탑 높이가 65메터이다.

립강문은 옛날에 영은문이라고 불리었다.

이미 립강문대교 밑 배머리에 진입한 관광객들이 환호성을 지른다. 그 환호성이 메아리로 되어 간간히 들려온다. 모두들 메아리소리를 들으면서 유난히 흥분했다.

“방금 소리를 질렀는데 메아리를 들으니 마치 어린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약간 흥분되고 격동되었다.”고 시민 양선생은 말했다.

유람선에 탄 사람들은 밤이 깊어지는 줄도 모르고 흥에 겨워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사진을 찍는다.

천진에서 온 관광객 동녀사는 “송화강 우에 있으면 광안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것은 길림시만의 랑만적인 순간이다.”라고 찬사를 보냈다.

저녁 9시, 춘도호 유람선이 천천히 삼도부두에 정박하면서 송화강 항행도 정식으로 계속되었다.

길림시서린수로운수유한회사 운영관리 리원룡은 “춘도호 유람선의 관광객량은 작년 동기 대비 60% 가량 증가되었다. 시민과 관광객을 야간문화관광에 참여시키기 위해 삼도부두와 두도부두는 문화관광 봉사 항목을 끊임없이 증가하고 배에서 2인전, 동화극, 무형문화유산 전시공연 등 활동을 전개했다. 춘도호 유람선 개통 이래 매일 3, 4백명의 시민과 관광객들이 송화강의 야간관광을 즐겼다.”고 말했다.

리원룡은 “가을에 접어들어 기후가 쌀쌀해졌지만 찬란한 송화강의 야경을 구경하려는 관광객들의 열정은 당해낼 수 없다. 현재 우리는 두도부두와 삼도부두에 모두 유람선을 개통했다. 두도부두의 문려호와 징홍호는 각각 50명에서 100명을 태울 수 있다. 삼도부두의 춘도호는 500명, 송성호와 송열호는 각각 80명의 관광객을 태울 수 있다.”고 소개했다.

/ 송화강넷

길림 건륭

맞춤형 서비스로 아프리카 고객 마음 사로잡다

일전, 아프리카 고객에게 납품하는 길림건륭강철유한회사의 5,100톤 SG295 용접병강(焊瓶钢)이 성공적으로 하차했다.

검사를 거쳐 제품의 화학성분, 력학성능, 표면품질 등 기술지표가 모두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켰다.

이 용접병강은 길림 건륭이 고객을 위해 맞춤 제작한 협폭용접병강으로서 주로 액화석유가스통, 산소통, 액상염소가스통 등 특수설비 용강을 제조하는 데 사용된다.

고객이 제작 과정에서 직접 열간 압연 강철로 깊이 프레스하여 성형할 것을 요구했기에 열간압연판 기계 성능의 균일성, 용접 성능, 표면 정밀도 등에 대한 요구가 매우 엄격했는바 강판 표면에 조금의 하자가 있어도 안되었다.

이 판재를 잘 압연하기 위하여 길



아프리카로 출발 대기중인 SG295 용접병강

림 건륭은 공예기술인군을 조직하여 원료의 입로에서 제품 출고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추적하여 제품의 전반 기술지표 모두 한번에 합격되도록 확보함으로써 당해 품종의 품질 안정을 보장하고 기간내에 납품하여 이 회사가 앞으로 더욱 비효율적 높은 효의 창출 능력을 갖춘 주문을 체결하는 데 튼튼한 토대를 닦아 놓았다.

/ 송화강넷

과학기술혁신으로 기업의 고품질 발전 추세 이어가



최근, 길림고신구에 위치한 길림항성전자유한회사에서 로동자들이 정밀설비를 조정하여 차량용 전자제품의 주문생산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몇년 동안 이 회사는 사물인터넷+빅데이터+지능화 시스템 기술 응용과 고객 수요를 긴밀히 둘러싸고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투입과

제품 설계의 연구개발 강도를 부단히 향상시키고 제품 교체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2억 5,000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린 이 회사는 기업 고품질 발전의 량호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 강성일보

길림시 조선족 민간단체, 합동문예공연으로 국경절 경축

9월 19일, 길림시기록친목회가 조직 주최하고 길림시 여러 조선족 민간단체들이 참가한 국경절 경축 합동문예공연이 길림시 송화강변 고로장산장에서 펼쳐졌다.

행사에 길림시 조선족 동락예술단, 민들레예술단, 해빛예술단, 영길현조선족민속협회예술단 등 단체의 문예 애호가 200여명이 참여하여 독창, 합창, 기악합주, 무용 등 다양한 문예종목 19개를 공연하였다.

그중 조선족 전통 악기 가야금합주, 통소합주와 최봉림가수가 부른 노래 <풍년을 경축하네> 등 종목들은 관중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다.

김창원가수가 부른 테너 <나는 오자산을 사랑하네>, 정경무용 <엄마의 김치>, 영길현조선족민속협회예술단이 내놓은 <붉은 해 변강을 비추네> 등 심금을 울리는 종목도 관중들의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기록친목회 배정록 회장은 “이번 행



무대공연의 한 장면

사의 개최는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5돐을 경축하여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다지고 길림시의 여러 조선족 민간단체들이 공연을 통해 서로 교류하고 배우고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

함이며 또 이번 행사의 개최로 기록친목회를 길림시 조선족사회에 더 널리 알리고 기록친목회의 영향력을 넓혀 조선족 민간 력사 기록에 대한 더 많은 조선족 지성인들의 관심과 지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데 목적을 두었다.”고 전했다.

한편 기록친목회는 2018년 3월 28일에 길림지역의 9명의 30, 40후 지성인들이 의기투합하여 사비를 털어서 설립한 민간단체로서 길림지역 나아가 전 중국 조선족의 민간 력사를 기록하는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기록친목회에서 만든 자료문집에는 지금까지 4기에 걸쳐 130만자가 넘는 조선족 민간의 력사가 정리, 기록되었는데 조선족 우수공산당원, 혁명선열, 로력모범들이 중국공산당의 령도 아래 부당한 력사 시기에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기록하고 차츰 력사의 흐름 속에 잊혀져가고 사라져가는 조선족 가정사, 조선족 마을의 력사 등 민간의 력사를 정리 기록하여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기고 있다.

/ 문창호특약기자, 차영국기자

자동차·가전제품 등 보상교환판매 시 정부보조금 향수

최근, 길림시정부 정보판공실에서 소집한 ‘2024년 소비재 보상교환판매 소식공개회’에 따르면 소비재 보상교환판매 행사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은 자동차, 가전제품, 가구류 제품을 구매할 때 정도부동하게 정책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상교환판매 정책에는 국가 자동차 보상교환판매 보조금 정책과 길림성 자동차 보상교환판매 보조금 정책이 포함된다. 국 3표준 및 그 이하의 배기량 기준 연료 승용차를 폐차하는 개인소비자의 경우, 조건에 부합되는 신에너지 승용차를 구매하면 2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2.0리터 및 그 이하 배기량의 연료 승용

차를 구매하면 1만 5,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인소비자가 본인이 길림성내에서 등록한 낡은 차를 양도하는 동시에 길림성내에서 연료나 신에너지 새 차를 구매하고 길림성내에서 등록을 마지면 5,000원에서 1만 3,000원까지의 부동한 정액의 정책보조금을 받게 된다.

가전제품의 보상교환판매 행사는 이미 두번째로 가동되었는데 우대정책과 관련된 것은 도합 16종의 가전제품이다. 에어컨, TV(프로젝션 설비 포함), 램프장고(램프고 포함), 세탁기(의류건조기 포함), 환풍기, 가스레인지, 온수기, 컴퓨터(노트북 포함) 등 8가지 상품의 보상교환판매 시 소비

자는 조건에 부합되는 낡은 가전제품을 제공해야 하며 새 기기는 판매가격의 15~20%에 따라 보조한다. 식기세척기, 정수기, 바닥청소기, 전자레인지, 전기오븐, 전기밥솥, 스마트 자물쇠, 공기청정기 등 8개 품목을 구매할 소비자는 낡은 기기를 제공하지 않아도 판매가격의 15%에 따라 정책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각종 상품을 구매하는 최고 보조금액은 2,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낡은 주택 장식, 주방, 화장실 부분적 개조, 자택 적로화(适老化) 개조에 필요한 물품 및 스마트 가구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도 길림시는 일정한 비율의 보조금을 지급한

다. 여기에는 침대, 매트리스, 쏘파, 옷장, 욕실장, 스마트 변기, 스마트 가정용 모니터링, 스마트 조명, 스마트 커튼, 스마트 빨래건조대 등 완제품류 가구 상품뿐만 아니라 세트 문, 세트 창문, 전제 궤, 타일, 바닥 등 맞춤형 가구 상품도 포함되며 간호 기능 침대, 휠체어, 욕조, 좌식 샤워기, 안마의자 등 적로화 적합 제품도 포함된다. 소비자는 이 20개 가구 상품을 구매할 때 실제 거래 가격의 15%에 따라 정책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각종 상품의 보조금은 2,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소비자 한명이 루게로 받는 보조금은 최고로 1만 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 강성일보



9월 21일, ‘자작나무와의 약속’ 제19회 길림·화전자작나무축제가 개막되었다.

길림·화전자작나무축제는 이미 연속 18회 개최되었는데 규모가 해마다 확대되고 차원이 해마다 제고되어 문화관광부에 의해 길림성의 중요한 축제활동의 하나로 확정되었다.

이번 자작나무축제는 한달 동안 ‘조국, 공동, 창조, 문명, 레찬’ 서화 작품 전시회, 황금가를 농민문예 합동공연 계열 행사, ‘민족단결 주선통을 노래하고 새로운 힘을 결집하고 분발하자’ 화전시 제5회 소묘 자작나무 조선족김치 미식문화 시즌, ‘신매체 신활력 촉진·신전자상거래 신발전 보조’ 전자상거래 창업대회 등 10가지 계열 행사를 개최하여 현지 군중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음식과 체험을 제공하게 된다.

가동식 당일 저녁, 관련 책임자들은 화전 관광정품 로선을 알심들여 소개하고 ‘자작나무와의 약속’ 화전

시 문화창조 계열 제품을 발표함과 아울러 길림성청년상무국제여행사 등 6개 관광 추진 후호협력 기업에 상패를 수여했다.

가동식후 유명 가수들이 현장에서 인기 가요를 선보였다.

이 밖에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또 6회의 다채로운 가무, 희곡공연이 있어 화전의 열정과 활력을 팔방에서 모여든 관광객들에게 충분히 전시했다.

화전시는 올해 자작나무축제 기간에 ‘생태자작나무-건강레저여행’, ‘산수자작나무-피서양생여행’, ‘인문자작나무-민속체험여행’, ‘홍색자작나무-교육연구여행’, ‘금수자작나무-공업계달음여행’ 5개 정품관광 코스를 중점적으로 출시, 화전시의 자연풍광, 력사인문, 홍색유적지, 도시풍모, 공업여행 등 전 지역 관광 코스를 련결하는 것으로 전 지역 관광사들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 주게 된다.

/ 길림일보